

주요국의 중견기업 지원 정책 동향 고찰

[애자일] KIAT 산업기술정책단 정책기획실('24.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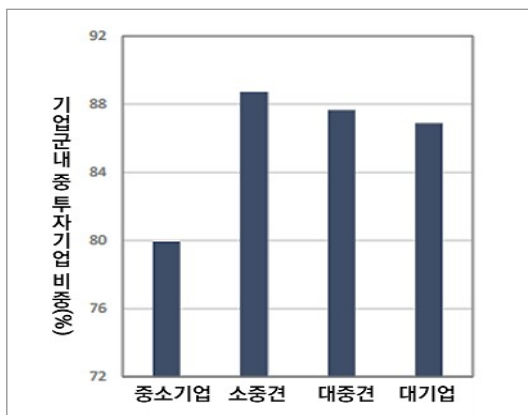


- ◆ 산업생태계에서 중견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00년대 이후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 중견기업이 정책적 육성 대상으로 자리매김
- ◆ 우리나라는 중견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해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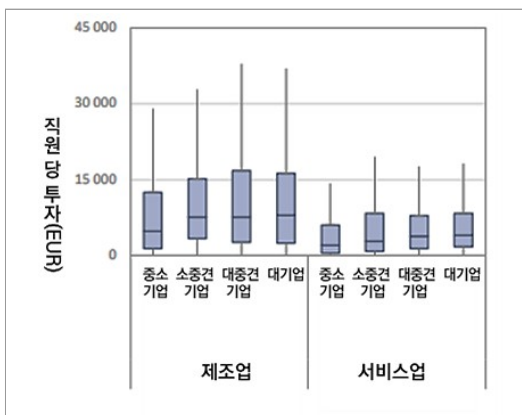
1. 개요

- 최근 중견기업이 국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정책적 관심 고조
 -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은 중견기업이 전자, 헬스, 에너지/재생 에너지, 우주항공 등의 분야에서 유럽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주체로 평가¹⁾
 - * EIB는 중견기업(mid-caps)을 종업원 250 이상 및 3,000명 미만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중견기업을 소중견기업(직원 250~499명)과 대중견기업(500~2,999명)으로 구분

[기업군별 투자성향]



[기업군별 종업원 1인당 투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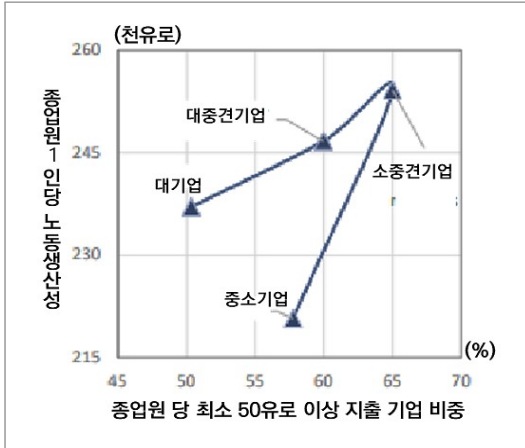


※ 자료 : EIB, Hidden champions, missed opportunities : Mid-caps' crucial roles in Europe's economic transition,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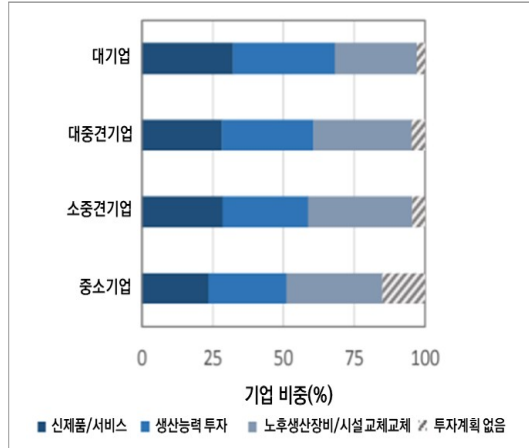
1) EIB, Hidden champions, missed opportunities: Mid-caps' crucial roles in Europe's economic transition, 2024

- 기업을 규모별 기업군으로 구분했을 때 중견기업군은 대기업 대비 투자를 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으며, 종업원 1인당 투자액 역시 제조업에서는 대중견기업군, 서비스업에서는 소중견기업군이 대기업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많은 투자를 감행하는 것으로 파악

[기업군별 교육훈련 투자 및 노동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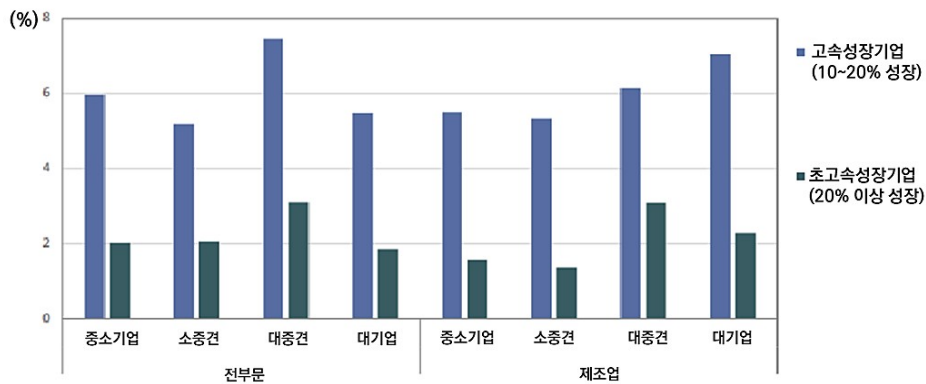
[기업군별 투자 분야]



※ 자료 : EIB, Hidden champions, missed opportunities : Mid-caps' crucial roles in Europe's economic transition, 2024

- 유럽 중견기업은 종업원 1인당 교육훈련 투자액이나 최소 50유로 이상 교육훈련비 지출기업 비중에서 대기업을 상회했으며, 신제품/서비스 투자, 생산능력 투자 등에서도 대기업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

[기업군별 고속성장 및 초고속성장 기업 비중]



※ 자료 : EIB, Hidden champions, missed opportunities : Mid-caps' crucial roles in Europe's economic transition, 2024

- 고속성장기업(연10~20% 성장) 초고속성장(성장률 연 20% 상회) 기업의 비중도 중견기업군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시현

- 이러한 중견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중견기업을 정의한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 정의조차도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²⁾

구분	중견기업 정의
종업원 규모에 따른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IB) 종업원 250명 이상, 3천명 미만 • (InnoFin[*]) 소중견기업을 종업원 250명 이상, 500명 미만, 대중견기업을 500명 이상, 3천명 미만 * Horizon 2020에 따른 유럽투자기금(European Investment Fund, EIF), EIB,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공동 이니셔티브 • (유럽집행위원회 리스크 금융 가이드라인) 종업원 250명 이상, 1,500명 미만
매출액 및 대차대조표에 따른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집행위원회 리스크 금융 가이드라인) 소중견기업은 연간 매출액 1억 유로 미만 또는 대차대조표 86백만 유로를 가진 종업원 250명 이상, 500명 미만의 기업[*] *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혁신적 중견기업도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은 특정 조건 하에서 연구개발혁신 지출 중 운영비용 비중이 일정 구간을 넘는 기업으로 정의 • (프랑스 국가통계경제연구원^{**}) 연간 매출액 15억 유로 미만 또는 대차대조표 20억 유로 미만을 가진 종업원 규모 250명 이상, 5천명 미만의 기업 *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Insee)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재건은행^{**}) 가족소유기업과 같은 정성적 지표로 적용 *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KfW) ** 독일의 미텔슈탄트(Mittelstand)는 “창업자나 창업자의 가족들에 의해 소유되고 경영되는 소유와 경영이 통합된 독립적 기업”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중견기업 특화 범주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³⁾

※ 자료 : EIB, Hidden champions, missed opportunities : Mid-caps' crucial roles in Europe's economic transition, 2024 및 IfM BONN 홈페이지에서 재구성

- 반면, 일본, 대만,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10년대 이후 히든챔피언⁴⁾을 벤치마킹하여 중견기업이라는 정책적 범주를 확정하여 성장정책을 시행
 - 단, 중국의 경우 '11년부터 대외의존도 감소 및 독자적 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강소기업 육성책을 도입하고 '18년부터 독일의 히든챔피언을 벤치마킹한 '전정특신' 소거인(专精特新 “小巨人”) 육성 프로젝트에 착수⁵⁾

2) EIB, Hidden champions, missed opportunities: Mid-caps' crucial roles in Europe's economic transition, 2024. EIB는 중견기업이 유럽의 각국이 디지털화, 녹색전환, 공급망 안정 등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유럽 제국이 관련 범주를 세우고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

3) IfM BONN 홈페이지, <https://www.ifm-bonn.org/en/definitions/overview>, 독일 중소기업연구원인 IfM BONN은 미텔슈탄트를 소유와 경영을 통일한 기업으로 최대 2명의 자연인 또는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지분의 최소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인들이 경영진인 기업으로 정의. IfM BONN, Mittelstand definition of the IfM Bonn 참조 <https://www.ifm-bonn.org/en/definitions/mittelstand-definition-of-the-ifm-bonn>

단, 종업원 250~500인 규모의 미텔슈탄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EU집행위원회(EC)가 정의한 중견기업 범위(종업원 50~499명, 매출액 5천만 유로 이하)와 상당히 중복되는 데다 독일에는 1,300개에 달하는 미텔슈탄트 히든챔피언이 있어 대만과 같은 국가들이 이를 벤치마킹하여 중견기업 성장정책으로 활용 조선미디어, [최재호의 소셜임팩트] 히든챔피언을 기다리며, 2021.04.27.

4) Hermann Simon의 1996년 저작의 제목으로 독일 Mittelstand 기업 중 글로벌 틈새시장 리더십을 갖춘 기업으로써 독일 경제가 보여주는 혁신 역량의 핵심 구축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칭

5) 아주경제, [차이나리포트] 중국 '작은거인' 육성 프로젝트, 2021.09.09., MERICS, China's "Little Giants" turn up the heat on Europe's Hidden Champions, 2024.01.11.

2. 주요국 중견기업 성장 정책

- **(프랑스)** '08년 경제현대화법(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 제정을 통해 중견기업 (Entreprises de Taille Intermédiaire, ETI) 개념을 명시하고 중견기업 성장 지원 방안을 본격 추진
 - * (경제현대화법 상 중견기업 기준) 종업원 250~5,000명 미만이면서 연매출 5천만 유로~15억 유로 미만이거나 대차대조표 자산이 4천3백만~20억 유로 이하인 기업⁶⁾
 - '12년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정부와 예금공탁공고(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CDC)가 50%씩 출자해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 설립
 - 마크롱 대통령은 당선 첫해인 '17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19.5월 기업의 혁신과 성장, 장애요소 제거를 목표로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행동계획법(Loi PACTE)」* 제정
 - * Loi 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ition des Entreprises
 - '20.1월 '중견기업국가전략'을 수립하고 4대 목표* 설정한 데 이어 '22.1월 '중견기업 국가전략 (Stratégie Nation ETI)'의 2단계로, 중견기업의 경제활동 재개 가속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한 4대 핵심과제와 10대 지원책 발표
 - * ①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②중견기업의 평균 규모 확대 ③중견기업으로 청년취업 유도 위한 대학과의 연계 강화 ④중견기업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가족자본주의(capitalisme familial)의 요구에 대응

핵심과제	10대 지원책
공공부문의 중견기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on1) ▲중견기업 뚜르 드 프랑스* 지속 ▲프랑스 각 지역에 중견기업클럽(club des ETI) 출범 및 지역별 로드맵 마련 * (Tour de France) 경제부 산업 담당 장관이 각 지역 대표 중견기업에 방문해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기업 의견을 청취하는 행사 • (Action2) 지역별 제조 중견기업 컨설턴트 임명, 지방정부 경제부서의 중견기업 지원 강화 추진 • (Action3) Bpifrance와 해외진출 지원사업인 'Team France Export'의 액셀러레이터 활용 증대를 촉진하는 중견기업 클럽 활동 장려 • (Action4) 각종 설문조사 및 통계의 중견기업 대상 조사를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에 대한 지식 개선 및 특성 인지 증진 • (Action5) 기업 양도 규정 명확화 및 중견기업 인식 제고를 위해 세무 당국과 정보 교환 지속
중견기업의 인재 접근성·매력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on6) 중견기업의 필요 인재 고용 비용 지원
중견기업의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경쟁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on7) 기업이 납부하는 생산세(impôt de production) 모니터링 지표 개발 • (Action8) EU기관들이 중견기업의 문제를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지원하는 활동 지속
중견기업의 환경·사회적 참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on9) 중견기업의 친환경 전환 촉진 • (Action10) 양성 평등, 통합, 지역 발전을 위한 중견기업의 사회참여 장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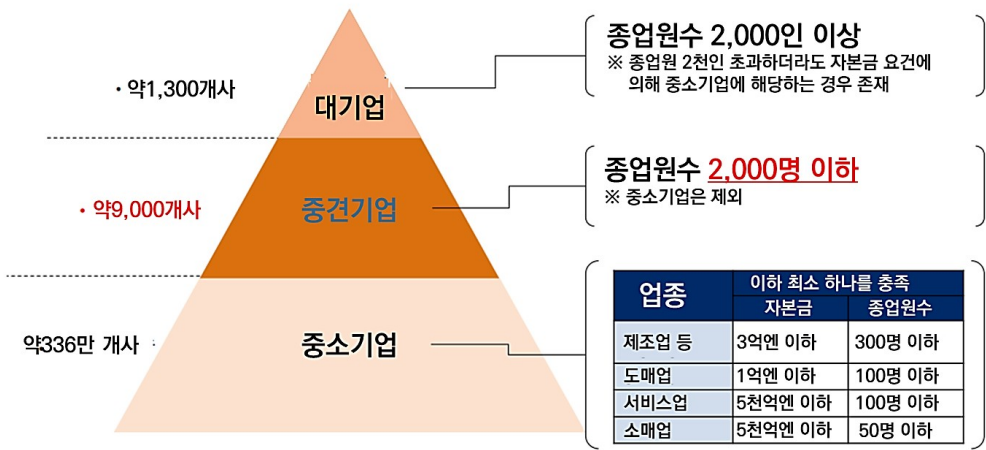
※ 자료 : 프랑스 정부홈페이지, "Stratégie Nation ETI", 2022.01.7)

6) 경제현대화법(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 제51조에 따른 시행령 제2008-1354호(décret n°2008-1354)

7) www.entreprises.gouv.fr/fr/industrie-entreprise

- **(일본)** '17.8월 '중견기업·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활력 향상을 위한 관계성청연락회의 (이하 연락회의)'를 구성하면서 중견기업 지원 시책 본격 논의
 - '20.12월 '연락회의'에서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에 관한 워킹그룹' 결성을 결정함으로써 중견기업 지원 시책을 전담 논의하기 위한 장 마련
 - 경제산업성은 '23.11월 중견기업의 기준을 상시 종업원 2,000명 이하의 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원 근거 마련

[일본의 중견기업 개념]



※ 자료 : 중견기업 등의 성장촉진에 관한 워킹그룹, 중견기업성장촉진패키지(中堅企業等の成長促進 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中堅企業成長促進パッケージ), 2024.03.13.

- 경제산업성은 '24년을 '중견기업 원년'으로 규정하고, 각 정부부처의 중견기업 활용 가능시책을 종합하여 '중견기업성장촉진패키지'를 책정('24.3)

국내투자확대·이노베이션의 촉진	해외수요 획득 지원 등
① 기업입지·투자 지원 ② 설비투자·생산성향상 ③ 지역과제 해결 ④ GX·DX 투자	① 해외판로 개척 지원 ② 해외전개 지원 ③ 인바운드 전략 전개
양질의 고용의 실현	경영기반의 강화 및 정비
① 중견·중소기업 임금인상 ② 리스킬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 ③ 지역에서 인재의 육성획득·인턴십 촉진 ④ 해외인재/자금 유인을 위한 액션 추진	① 경영력 향상 ② 경영개선·사업재생 지원

※ 자료 : 중견기업 등의 성장촉진에 관한 워킹그룹, 중견기업성장촉진패키지(中堅企業等の成長促進 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中堅企業成長促進パッケージ), 2024.0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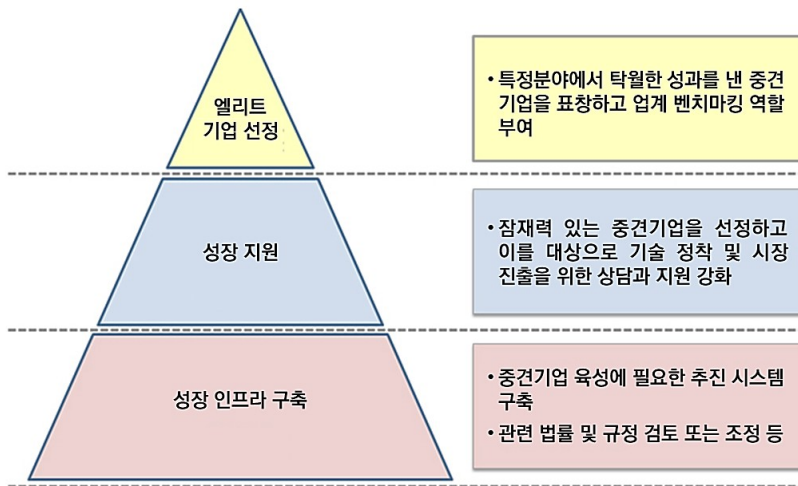
- **(대만)** 독일 ‘히든챔피언’ 벤치마킹과 대만 산업발전 특성을 고려해 중견기업*을 정의하고 중견기업 육성 적극 추진

* (중견기업 기준) 적정 규모(연매출 200억 신대만달러(8,600억원)⁸⁾ 이하 또는 직원 수 2,000명 이하 기업), 탄탄한 기초기술, 특정 분야의 독창·핵심 기술 보유, 높은 국제시장 경쟁력, 주요 경영 또는 생산기지 국내 보유

- '12.10월 ‘중견기업도약추진계획(推動中堅企業躍升計畫)’ 수립하고 '15.3월 동 계획의 1차 수정안 발표

* (목표) ▲2년마다 잠재력있는 중소기업 중점 코칭 ▲2년마다 10~12개 탁월 중견기업 선정 ▲9년 내 관련 투자 3,000억 신대만달러 ▲9년 내 일자리 3만개 창출

[대만 중견기업도약추진 전략]



※ 자료 : 경제부(經濟部) 홈페이지⁹⁾

- '17.8월 경제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중견기업도약추진계획구체조치(推動中堅企業躍升計畫 具體措施)’ 발표

인재	산학협력 강화, 산업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기술	중소기업 혁신 연구개발 계획, 서비스산업 혁신 연구개발 계획, ‘A+산업혁신 R&D 프로그램’ 계획 수립
지식재산	지식재산 가치 제고 계획, 기업 지식재산 경영관리 계획
브랜드 및 마케팅	국제시장 개척 강화, 대만 브랜드 약진 계획

- '13년부터 '22.9월까지 탁월중견기업 85개, 잠재중견기업 492개 선정 및 지원 제공 중

8) 2022년 5월 10일 기준 : 1신대만달러=약 43원

9) https://www.mittelstand.org.tw/information.php?p_id=74

● (중국) '11년부터 강소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시기에 따라 이를 고도화

- 정책을 변화시켜나가는 가운데에도 '전정특신'을 주된 키워드로 유지하는 가운데 '18년부터 히든챔피언을 의식한 '소거인' 기업 육성을 본격화

추진시기	주요 내용
발전 초기(2011~15년) '전정특신' 중소기업 개념 도입, 발전방향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중소기업 12.5 성장규획("十二五"中小企业成长规划)"에서 처음으로 '전정특신' 개념 등장 • ('13) '전정특신' 발전 지도의견(关于促进中小企业“专精特新”发展的 指导意见)'에서 발전방향 제시
세분화 발전 단계(2016~18년) '전정특신' 기업 육성방안 세분화, 기업육성 중점조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전정특신'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促进中小企业发展规划(2016-2020年)) 실시 • ('18) '소거인' 기업 육성 구체방안(关于开展专精特新“小巨人”企业培育工作的通知) 확정
발전 가속화단계(2019년~현재) '전정특신' 기업의 전략적 위상 제고, 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공업정보화부, 제1차 '소거인' 기업 명단 발표 • ('21) 세제혜택, 신용대출지원 등 31개의 구체적 조치 발표 * '25년까지 10,000개 '작은 거인' 기업 육성 목표 • ('22) 혁신형 중소기업, '전정특신' 중소기업,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 인증 기준 확정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중 기술경쟁 시대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2023.12.29.에서 재구성

- 당초 대외의존도 감소가 주된 주안점이었으나, '15년 '제조 2025'정책을 추진하면서, 10대 중점산업*, 5대 산업기초**를 '소거인' 기업 육성 분야로 지정

* (10대 중점산업) 차세대 정보기술, 고정밀 공작기계·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장비·첨단선박, 선진 궤도교통 설비,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기계 장비, 신소재, 바이오 의약·고성능의료기기

** (5대 산업기초) 기초부품, 기초공정기술, 기초소재, 산업기초기술, 공업기초소프트웨어

- '19년부터 '전정특신 소거인' 인정을 시작해 '23.7월 기준 총 12,192개사(누적) 인증 획득

* '전정특신 소거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6가지 지표를 충족해야 함

지표	주요 내용
전문성(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화 발전의 길을 고수하고 오랫동안 산업 가치사슬의 특정 링크 또는 특정 제품에 집중하고 깊이 탐구 - ▲전년도말 기준으로 특정 시장 부문에 3년 이상 종사 ▲주요 사업의 총 수익이 총 영업 수익의 70% 이상 차지 ▲최근 2년간 주요 사업 영업수익의 평균 증가율은 5% 이상
정밀성(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인 발전 전략에 주의를 기울이고 실행하며, 표준화된 기업 지배 구조, 좋은 평판, 강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생산기술, 프로세스 및 제품 품질 성과에서 국가를 선도 - 디지털 및 친환경 개발에 중점을 두고 R&D, 설계, 생산 및 제조, 공급망 관리 등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핵심 비즈니스에서 정보시스템을 채용해 지원 - 제품에 대해 관련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거나, 선진국 및 지역의 제품인증(국제표준협회 산업 인증)을 통과 - 전년도말 기준 회사의 자산부채비율이 70% 이하

지표	주요 내용
독창성(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과 제품이 고유한 장점을 보유 ▲주력 제품의 국내 관련시장 점유율 10% 이상, 높은 지명도와 영향력 발휘 ▲시장에 직접 출시하고 경쟁우위를 갖는 독립적인 브랜드 보유
혁신성(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조건 3가지 모두 충족, 직접적인 혁신 조건 2가지 중 하나 충족 (일반조건) (1)▲전년도 총 영업수입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총 R&D 비용이 총 영업수입의 3% 이상 ▲전년도 총 영업수입이 5,000만~1억 위안인 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총 R&D 비용이 총 영업수입의 6% 이상 ▲전년도 총 영업수입이 5천만 위안 미만인 기업은 지난 2년간 총 신규 자기자본 조달(적격 기관 투자자가 실제 납부 금액)이 8천만 위안 이상, 총 R&D 비용은 3천만 위안 이상이며, R&D 인력은 회사 전체 직원 수의 50% 이상 (2)차체적으로 또는 대학, 과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설립하고, 기술연구소, 기업기술센터, 기업엔지니어링센터, 전문가그룹워크스테이션, 박사후 워크스테이션 등을 설치 (3)주력 제품에 관한 2개 이상의 1급(一类)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 (직접적 조건) (1)최근 3년간 국가과학기술상을 수상하고, 상위 3위에 위치 (2)지난 3년 동안 “창커 중국(创客中国)” 중소기업 혁신 및 창업 대회에서 전국 상위 50개 기업 목록에 진입
산업가치 사슬(链)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가치사슬의 핵심 링크에 위치, 핵심 산업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핵심 기본 기술 및 제품의 산업적 응용을 실현 산업 가치사슬의 기술공백(补短板) 구간 및 대체불가 공급원(锻长板)으로서의 역할, 공백 보완(填空白) 기능을 수행
제품(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제품은 다음과 같은 핵심 영역에 속해야 함 제조 핵심 기초 부품, 구성요소, 핵심 소프트웨어, 첨단 기초 엔지니어링, 핵심 기본 재료 및 산업 기술 기반에 속하는 제품, 또는 제조강국전략 10대 중점 산업과 부합하는 제품, 또는 사이버강국 구축을 위한 정보인프라, 관련 핵심기술, 네트워크보안, 데이터보안 분야에 속하는 제품

※ 자료 : 공업정보화부, 우수 중소기업의 단계별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 통지(工业和信息化部,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优质中小企业梯度培育管理暂行办法》的通知), 2022.06.01.

-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가급 장려금 50만 위안 + 각 지역별 매칭 장려금 50만 위안이 기본이며,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¹⁰⁾

* 북경시의 경우 장려금과 각종 지원을 포함 최대 500만 위안¹¹⁾, 심천시의 경우 국가급 소거인 50만 위안, 성급 소거인 20만 위안 장려금 지급¹²⁾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중 기술경쟁 시대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2023.12.29.

11) 북경시인민정부 판공청, 중소기업이 전정특신 발전 경로를 따르도록 장려 이창 “소거인”은 최고 500만 위안 지원 획득 가능(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 鼓励中小企业走专精特新发展道路 亦庄“小巨人”最高可获500万元支持), 2024.01.09.

12) 특신, 2023년 전정특신 최신 보조금·심천시 및 각구급 전정특신 장려금 및 정책에 의거 종합(심천시 전정특신 보조금)특讯, 2023년专精特新最新补贴 : 深圳市及各区级专精特新补贴和政策依据汇总(深圳市专精特新补贴), 2023.10.20.

3. 시사점

-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을 특화한 정책이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EU 등도 이러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
 - '00년대 이후 독일의 미텔슈탄트 정책과 히든챔피언 개념에 자극을 받은 프랑스, 일본, 대만 등이 중견기업을 정책적 육성 대상으로 설정
 - 이러한 국가들은 모두 중견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중점을 둔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나 지역의 과제 해결을 중견기업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설정
 - 중국의 경우 중견기업을 특화시킨 정책은 없으나 히든챔피언과 유사한 '전정특신 소거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혁신성이 높은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강조
- 우리나라 중견기업 역시 산업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면서 튼튼한 산업구조 형성에 일조
 - 중견기업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대기업보다 2배 이상 빠른 회복력을 보여 주었으며, '19년 일본 수출규제 당시 대일 의존도 완화에 기여¹³⁾
 - '22년 기준 중견기업의 총 투자는 전년대비 26.7% 증가한 38.9조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R&D 투자 역시 9.42조원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¹⁴⁾
 - * R&D(조원) : ('16)6.2 → ('17)7.2 → ('18)8.0 → ('19)7.8 → ('20)7.7 → ('21)8.4 → ('22)9.4
 - * 설비투자(조원) : ('16)23.2 → ('17)21.9 → ('18)24.2 → ('19)20.8 → ('20)19.0 → ('21)22.3 → ('22)29.5
- 우리 정부는 '14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을 제정하고 '15년부터는 5년 단위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
 - 지난 '23년에는 '30년까지 중견기업 1만 개 육성,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중견기업 4대 전략적 역할* 강화 ▲중견기업 자발적 혁신 및 도전 유도 전 주기 지원 체계 구축 ▲중견기업 성장 촉진형 인프라 조성 등 3대 전략과 10대 세부 과제를 담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 발표
 - *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변화 대응, 성장 사다리 확충
- 중견기업이 산업생태계 내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허리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중견기업 스스로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한층 강화해 산업생태계 기반을 확고히 하는 정책 필요
 - 프랑스와 같이 지역별 제조 중견기업 컨설턴트 제도를 도입해 중견기업 스스로 산업생태계, 더 나아가 지역산업생태계에서 핵심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그 역할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또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업종에 속해 있는 만큼 일본사례를 참고하여 각 부처의 중견기업 활용 가능 정책 수단을 종합하여 부처합동형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지자체 협력 정책을 구사할 필요

13)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2023.01.

14)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2023.12.

〈참고문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중 기술경쟁 시대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2023.12.29.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2023.01.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2023.12.
- 아주경제, [차이나리포트] 중국 '작은거인' 육성 프로젝트, 2021.09.09.
- 조선미디어, [최재호의 소셜임팩트] 히든챔피언을 기다리며, 2021.04.27.
- European Investment Bank, Hidden champions, missed opportunities Mid-caps' crucial roles in Europe's economic transition, 2024.
- IfM BONN 홈페이지, <https://www.ifm-bonn.org/en/definitions/overview>
<https://www.ifm-bonn.org/en/definitions/mittelstand-definition-of-the-ifm-bonn>
- 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19283050>
- MERICS, China's "Little Giants" turn up the heat on Europe's Hidden Champions, 2024.01.11.
- "Stratégie Nation ETI", 2022.01.
https://minefi.hosting.augure.com/Augure_Minefi/r/ContenuEnLigne/Download?id=0BD886AD-60F3-4796-BD70-AA178583F389&filename=1863%20-%20DP%20Strategie%20Nation%20ETI%20-%205%20janvier%202022.pdf
- 經濟部 홈페이지, https://www.mittelstand.org.tw/information.php?p_id=74
- 공업정보화부, 우수 중소기업의 단계별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 통지(工业和信息化部,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优质中小企业梯度培育管理暂行办法》的通知), 2022.06.01.
- 특신, 2023년 전정특신 최신보조금·심천시 및 각구급 전정특신 장려금 및 정책에 의거 종합(심천시 전정특신 보조금)(特讯, 2023年专精特新最新补贴: 深圳市及各区级专精特新补贴和政策依据汇总(深圳市专精特新补贴)), 2023.10.20.
- 북경시인민정부 판공청, 중소기업이 전정특신 발전 경로를 따르도록 장려 이창"소거인"은 최고 500만 위안 지원 획득 가능(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 鼓励中小企业走专精特新发展道路 亦庄"小巨人"最高可获500万元支持), 2024.01.09.
- 중견기업 등의 성장촉진에 관한 워킹그룹, 중견기업성장촉진패키지(中堅企業等の成長促進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中堅企業成長促進パッケージ), 2024.03.1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단 정책기획실 조상동 수석연구원 / csd@kiat.or.kr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